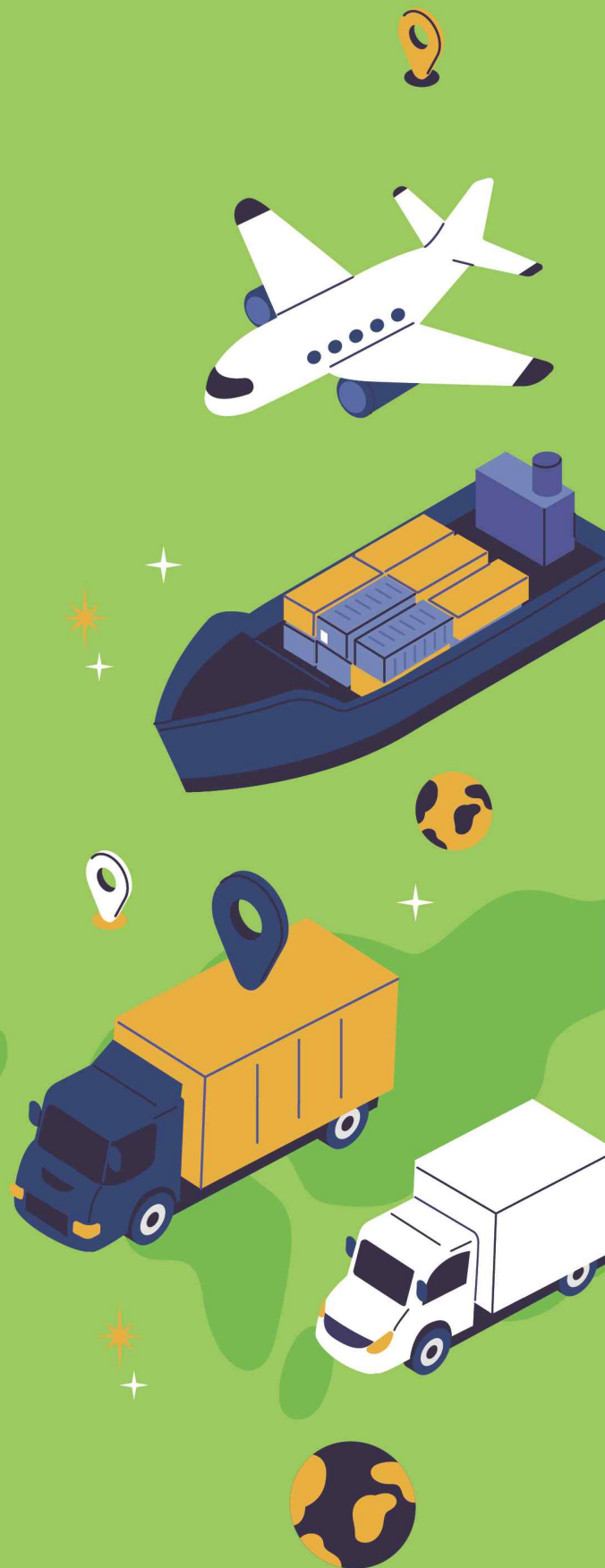


2025 농식품 수출 이슈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25 농식품 수출 이슈조사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현지 수입 동향 및 시사점

2025년 8월 4일자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1 USD(달러) = 1,384.00원

본 보고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 농식품 수출이슈조사> 사업으로 추진된 결과물로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변형을 금지합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제목과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이슈배경 1

- 1. 미국 상호관세 조치 도입 배경 1
- 2. 미국 상호관세 조치 현황 2



II 영향분석 5

- 1. 미국 수입·유통업체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5
- 2. 관세 조치에 따른 미국 소비 동향 전망 7



III 결론 9

- 1. 미국 관세 조치가 對美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9
-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10

표목차



〈표 Ⅰ-1〉 미국의 상호관세 산출법	2
〈표 Ⅰ-2〉 미국 상호관세 관련 발표 타임라인	3
〈표 Ⅰ-3〉 미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한 국가 목록('25.7.31. 기준)	4
〈표 Ⅱ-1〉 미국 상호관세 적용 시 한국산 농식품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5
〈표 Ⅱ-2〉 미국 상호관세 적용 시 현지 수입·유통업체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6
〈표 Ⅱ-3〉 2025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추이	7
〈표 Ⅱ-4〉 미국 상호관세 적용 시 미국 소비자의 예상 반응에 대한 의견	8
〈표 Ⅲ-1〉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구비 서류	11

그림목차



〈그림 Ⅰ-1〉 미국의 관세부과 체계	2
----------------------------	---

I. 이슈배경

1 미국 상호관세 조치 도입 배경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기조를 발표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의 회귀를 선언하며,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와 불균형한 무역 환경 및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 ‘미국 우선 무역정책’은 △관세 체계의 광범위한 재조정을 통한 무역적자 축소 △불공정한 무역 관행 시정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외무역시스템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무역적자 문제와 산업 공동화 현상에 따른 제조업 기반 약화 및 지역경제 붕괴를 ‘불공정 무역’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함
- 또한 ‘상호 호혜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Reciprocal Trade and Tariff)’에 서명하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이나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한 교역조건으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 이는 거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저해 △산업 기반 약화 △국가 경쟁력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외무역시스템 개혁을 통해 미국의 거대한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전략을 본격화

- ‘미국 우선 무역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국가 간 등가 교환을 전제로 동일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Reciprocity)’를 도입하고, 대등한 교역조건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
- 관세 체계의 광범위한 재조정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줄이고 △불공정한 교역환경 및 관행을 시정하며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외무역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함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불균형한 교역환경을 수정하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상호관세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통상 전략 본격화

2 미국 상호관세 조치 현황

2025년 4월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행정명령 14257호(Executive order 14257)'를 통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

-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2025년 4월 2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상호관세가 부과
- 또한, 2025년 4월 9일부터 '행정명령 14257호 부속서 I'에 명시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 규모를 고려하여 산출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
 - 상호관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을 포함한 총 57개국으로, 국가별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은 미국산 제품이 해당 국가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나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비관세장벽을 고려하여 산출

표 I-1 미국의 상호관세 산출법

$$\Delta T_i = \frac{x_i - m_i}{\epsilon^* \phi^* m_i}$$

(T_i = 미국이 i 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 ϵ =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의 탄력성, ϕ = 관세전가율

m_i = i 국으로부터의 총수입, x_i = i 국에 대한 총수출)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https://ustr.gov>)(검색일: 2025.07.28.)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체계는 기본세율 또는 한-미 FTA 세율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 또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

그림 I-1 미국의 관세부과 체계



*출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3편 식품류,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2025.05)

- 2025년 4월 9일, ‘행정명령 14266호(Executive order 14266)’ 발표를 통해 특정된 57개국에 적용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로 90일간 연기함¹⁾
-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 및 경제적 안보 문제를 해결에 협조하려는 교역상대국의 진심과 의지를 고려하여 상호관세 적용일을 연기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포함된 ‘행정명령 14257호 부속서 I’에 명시된 국가는 7월 9일까지 여타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10%의 기본 상호관세가 적용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력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촉구

2025년 7월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행정명령 14316호(Executive order 14316)’를 통해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적용일을 2025년 8월 1일로 재차 연기

-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과의 논의 현황 및 내각의 권고를 고려하여 상호관세 부과일을 8월 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따라서, 8월 1일부터 식품을 포함한 ‘행정명령 14257호 부속서 I’에 명시된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음
- 단, 한국을 포함하여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유럽연합과 같이 미국과의 별도 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합의한 경우, 행정명령 14257호에 명시된 관세율이 아닌, 양국 간 합의한 관세율이 적용

표 I-2 미국 상호관세 관련 발표 타임라인

발표일	법안	주요 내용
2025.04.02.	행정명령 14257호	-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상호관세 부과 - 4월 9일부터 50여 개국에 차등 상호관세 부과하며, 한국에는 25% 의 상호관세 부과 예정
2025.04.09.	행정명령 14266호	- 4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를 7월 9일 0시 1분까지 90일간 유예 (7월 9일 0시 1분 이후로 상호관세 적용)
2025.07.07.	행정명령 14316호	-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적용일(7월 9일 적용 예정)을 8월 1일 로 연기 - 한국 포함 14개국에 최종 상호관세율 및 상호관세 시행일 연기를 통지하는 내용의 서한 발송
2025.07.09	상호관세 서한 공개	- 필리핀을 포함한 8개국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 발송 - 브라질(50%), 알제리(30%), 이라크(30%), 리비아(30%), 스리랑카(30%), 브루나이(25%), 몰도바(25%), 필리핀(20%)
2025.08.01.	상호관세율 추가 수정 ¹⁾	- 8월 7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15% 의 상호관세 부과 - 일본 등 68개국과 유럽연합에 적용할 조정된 관세율 명시

*주1: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출처: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www.federalregister.gov),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검색일: 2025.07.28.)

1) 백악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은 7월 9일 0시 1분(美 동부시간)까지로, 7월 8일까지는 관세 부과가 유예되나 이후 7월 9일(0시 1분 이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음

2025년 8월 1일 기준, 총 7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완료

-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유럽연합과의 상호관세 관련 무역 협상을 완료함

표 I-3 미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한 국가 목록('25.7.31. 기준)

구분	국가명	종전 관세율(A) (`25.4.5~)	협상 관세율(B) (`25.8.7~)	차이(B-A) (%p)	협상완료일 (美동부시간 기준)
1	영국	10%	10%	-	'25.5.8
2	베트남	46%	20%	△26%p	'25.7.2
3	인도네시아	32%	19%	△13%p	'25.7.15
4	일본	(4.2) 17% (7.9) 20%	19%	△1%p	'25.7.22
5	필리핀	(4/2) 24% (7/7) 25%	15%	△10%p	'25.7.22
6	EU	(4/2) 20% (7/7) 30%	15%	△15%p	'25.7.27
7	한국	25%	15%	△10%p	'25.7.30

*출처: 美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 현황(8.4 기준), KATI 농식품 수출정보(검색일: 2025.08.04. 검색)

2025년 8월 7일부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식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나, 8월 7일²⁾ 이전 선적 제품 중 2025년 10월 5일³⁾ 이전에 통관되는 물품에는 기존 관세율 적용

- 지난 2008년 발효된 한-미 FTA 협정에 의거하여 2024년 기준 對미국 주요 한국산 농식품 수출 품목은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
- 그러나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치(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2025년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농식품에 10%의 상호관세가 부과
- 2025년 7월 31일에 발표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상호관세는 15%의 관세율이 8월 7일(현지 시간)부로 적용될 예정
 - 이에 라면,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신선 배, 베이커리류, 소스류, 조제식료품 등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식품에는 향후 15%의 세율이 일괄 적용
- 다만 미국산 원재료의 가치의 제품 내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미국산 원재료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적용이 면제
 - 또한, 4월 14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에도 상호관세 적용이 면제되는 대신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캔에 포장된 맥주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됨

2) 8월 7일 00시 01분 이전 기준

3) 10월 5일 00시 01분 이전 기준

II. 영향분석

1 미국 수입·유통업체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본 절은 (주)트레이드파트너스에서 2025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5일간)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으로, 미국 내 전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 또한 본 절의 내용은 미국의 對한국 상호관세를 발표일(7/31)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지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

☞ 한국 농식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수입·유통업체는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마진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⁴⁾

- 한국산 농식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설문에 참여한 모든 응답 기업(12개사, 100%)가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인식
- 뒤이어 ‘마진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될 것(9개사, 22.5%)’, ‘기존 대비 발주량이 축소될 것(6개사, 15.0%)’, ‘대체 국가 또는 대체상품 발굴을 검토할 것(6개사, 15.0%)’, ‘기존 거래처의 수요 감소(5개사, 12.5%)’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이 외에도 기존 ‘오프라인 판매채널의 온라인 전환 검토(1개사, 2.5%)’ 등의 의견이 수렴
 - 일부 업체(1개사, 2.5%)는 기타 의견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바이어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며, 타 국가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일부 한국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 타이밍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시장 진입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주요 품목군 구성을 재편하는 등 시장 진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

표 II-1 미국 상호관세 적용 시 한국산 농식품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단위: 개사, %)

연번	답변	응답 수	응답 비중	
1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 불가피	12	30.0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불가피 30.0
2	마진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9	22.5	마진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22.5
3	기존 대비 발주량 축소	6	15.0	기존 대비 발주량 축소 15.0
4	대체 국가 또는 대체상품 발굴 검토	6	15.0	대체국가 또는 대체상품 발굴 검토 15.0
5	기존 거래처 수요 감소 예상	5	12.5	기존 거래처수요 감소 예상 12.5
6	판매채널 전환 검토	1	2.5	판매채널 전환 검토 2.5
7	기타*	1	2.5	기타* 2.5

*주: [기타] 바이어의 구매력 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현지 유통채널 확장 시 타 국가 제품과의 경쟁 격화. 일부 한국 브랜드의 미국 진출 타이밍이 지연되거나, 제품 라인업 조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출처: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 트레이드파트너스(2025.07.)

4) 2025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트레이드파트너스

🌱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 현지 한국산 농식품 수입·유통업체의 22.6%^{7개사}는 △주요 품목군을 중심으로 발주량을 조정할 것이며, △한국의 공급업체와 가격 재협상을 시도할 계획**

- △한인 시장 외 소비층을 강화하여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할 계획인 기업은 5개사^{16.1%}로 나타났으며, △수입 시기 또는 분할선적 등 물류 전략을 조정하거나 △수출자, 협회 등 한국 측과 공동 대응할 계획인 기업은 각각 4개사^{12.9%}로 확인
- 이 외에도 응답 기업의 9.7%^{3개사}는 △타 국가산으로 대체 수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은 미국의 유통환경을 고려해, 관세 리스크에 따라 제품 현지화 전략을 조정하고, 현지 바이어와 공동 프로모션 또는 B2B 라이선싱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응답 수렴

표 II-2 미국 상호관세 적용 시 현지 수입·유통업체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개사, %)

연번	답변	응답 수	응답 비중	
1	주요 품목군 중심으로 발주량 조정	7	22.6	주요 품목군 중심으로 발주량 조정 22.6
2	한국 공급업체와 가격 재협상 시도	7	22.6	한국 공급업체와 가격 재협상 시도 22.6
3	한인시장 외 소비층 공략 강화	5	16.1	한인시장 외 소비층 공략 강화 16.1
4	수입시기 또는 분할선적 등 물류전략 조정	4	12.9	수입시기 또는 분할선적 등 물류전략 조정 12.9
5	한국 측(수출자, 협회 등)과 공동 대응	4	12.9	한국 측(수출자, 협회 등)과 공동대응 12.9
6	타 국가산으로 대체 수입 추진	3	9.7	타 국가산으로 대체 수입 추진 9.7
7	기타*	1	3.2	기타* 3.2

*주: [기타] 가격 민감도가 높은 미국 유통환경을 고려해, 관세 리스크에 따라 제품 현지화 전략(가격·패키징·브랜드 메시지 등)을 조정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공동 프로모션 또는 B2B 라이선싱 모델 검토

*출처: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 트레이드파트너스(2025.07.)

🌱 **미국에서 한국 농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추가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지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거나 △취급 제품이나 원재료를 타국산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비교적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으로 취급 제품을 전환하려는 대응 방안도 확인
- 대부분의 현지 수입·유통업체는 △추가 관세 부담분 중 일부를 한국 공급사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 마케팅(이벤트)을 추진하는 등 ‘한국 측과 공동 대응’하거나 △미국 관세 신고 기준가격의 재설정(CIF→FOB) △미국 시장 내 소비자 가격 민감도 분석을 통한 가격 범위 재산정을 통한 판매전략 수정 등으로 수입 전략을 재편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기업은 수입업체 측에서 수입단가를 인상할 계획(추가 관세 인상분 수입자 부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외에도 수출육성책이나 환율 대응 등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응답이 확인됨

2 관세조치에 따른 미국 소비 동향 전망

글로벌 및 현지 기관은 공통적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물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세 인상에 따른 실질적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

-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5년 6월(최신자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는 2.7%로 전월 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동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특히 식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로 전월('25.5월) 2.9%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동월('25.6월) 평균(2.7%)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3 2025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체	3.0%	2.8%	2.4%	2.3%	2.4%	2.7%
식품 부문	2.5%	2.6%	3.0%	2.8%	2.9%	3.0%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www.bls.gov)(검색일: 2025.08.05.)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025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2.4%에서 3월 1.7%, 7월 1.1%로 하향 조정함
 - 미국 내 소비 지출 추이가 불안정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단발성 가격 인상만으로도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⁵⁾)⁶⁾를 기반으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2025년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시행은 2026년 경제성장률의 0.8%p를 하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
 - 골드만삭스는 관세조치에 따른 비용상승 중 5분의 1 수준을 해외 수출업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분의 4는 미국 기업 및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분석
 - AP통신 역시 이번 관세 조치가 외국에 부과되는 세금처럼 묘사되나, 실제로는 미국 내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영향은 미국 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
-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⁷⁾) 상호관세 조치는 소비자의 부담을 확대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2025년 7월 28일 기준 미국이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실효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18.3%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2.4%에서 약 7배 이상 높은 수준,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 BBC의 인용 보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280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로, 2024년 월평균 수입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
 - 2025년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물가 상승률은 1.8%로 예측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2,435달러(한화 약 337만 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또한 이번 관세 부과조치로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0.5%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0.4%p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
 - 이는 2024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연간 1,200억 달러(한화 약 166조 원) 규모의 손실로 나타남

5)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6) 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지표

7) The Budget Lab at Yale

- (미국진보센터^{CAP⁸⁾})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가구에 연평균 5,200달러(한화 약 72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 이번 관세 조치는 수입품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여 미국의 물가수준^{Price level}은 최소 1.7%에서 최대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미국진보센터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특히 저소득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 (미국기업연구소^{AEI⁹⁾})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비현실적인 경제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에 따른 실질적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
- 이 외에도 미국상공회의소^{USCC¹⁰⁾}, 전미제조업협회^{NAM¹¹⁾}, 부르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등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도입 목적인 무역적자의 개선 효과보다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공급망 붕괴, 비용상승 등을 야기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미국 내 한국식품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25년 7월), 추가 관세로 판매가격이 인상될 경우 △필수품이 아닌 선택품의 수요 축소 △일부 고객 이탈 △구매량 즉시 감소 △대체품으로의 수요 전환 등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¹²⁾

- 응답 기업의 41.7%^{5개사}는 필수품의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선택품의 수요는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25.0%^{3개사}는 일부 고객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응답
- 또한 △미국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여 구매량이 즉시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대체 제품으로 수요가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16.7%^{각 2개사}로 나타남
- 이번 추가 관세로 판매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집계되지 않음

표 II-4 미국 상호관세 적용 시 미국 소비자의 예상 반응에 대한 의견

(단위: 개사, %)

연번	답변	응답 수	응답 비중
1	품목별 차별화 발생 (필수품은 수요 유지될 것이나 선택품은 축소)	5	41.7
2	주요 소비자는 구매를 유지할 것이나 일부 고객의 이탈 예상	3	25.0
3	가격에 민감하여 구매량 즉시 감소 예상	2	16.7
4	대체 제품으로의 전환 증가 예상	2	16.7
5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0	-



*출처: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트레이드파트너스(2025.07.)

8)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9)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0) U.S. Chamber of Commerce

11)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12) 2025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트레이드파트너스

III. 결론

1 미국 관세조치가 對美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對美 수출 농식품은 관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

- 가격 전가가 어렵고 가격탄력성이 높은¹³⁾ 농식품의 특성상,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은 단기적 관점에서 미국 시장 내 수요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7월,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0%가 미국 상호관세 적용 시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응답
 - 또한 '마진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22.5%)'될 것이며, '수입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대비 발주량이 축소(15.0%)'되거나, '기존 거래처의 수요가 감소(12.5%)'할 것이라고 예상
- 글로벌 경제 전문 기관 및 언론보도 등에서도 이번 관세 조치에 따라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산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어 실질적인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관세 조치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며 수요가 위축되어 對美 농식품 수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 전망
 -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의 41.7%는 '필수품을 제외한 선택품의 수요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 하였으며, 25.0%는 '일부 고객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응답
 - 이 외에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특성상 구매량이 즉시 감소할 것'이며, '대체 제품으로의 전환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16.7% 차지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농식품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

- 2025년 8월 7일부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¹⁴⁾을 대상으로 확정된 상호관세 행정 명령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반 서류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미국은 연방규정 19 CFR 134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수출국이 아닌 식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로 간주하며 특히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 원산지로 간주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며, 원산지 판정 시 개별 사례에 대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정한 뒤 관세를 부과
- 한국산 농식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최종 제품의 '원산지 (Country of Origin)'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됨
 - 이에 중국산, 베트남산 등 타국가에서 원료를 수입한 뒤 한국에서 추가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가공이 충분히 실질적인 변형을 거쳐 생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최종 원산지가 결정되므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준비가 요구됨

13)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자가 소비량(수요)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가격 변화에 비해 수요량이 변화가 크면 가격탄력성이 높음. 대체재가 많은 농식품의 경우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해당

14) 한국을 포함한 69개국(유럽연합 포함)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및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2025년 8월 7일부로 상호관세를 부과

-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일시적 보호무역 조치가 아닌 통상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對美 농식품 수출기업은 변화한 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수출전략 수립이 불가피
- **(관세 대응형 수출전략 수립)** 미국의 이례적인 고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수출전략 재편 필요
 -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미국의 수입 관세율은 9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美에일대학교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유효관세율은 2025년 초 2.5%에서 7개월 만에 18.3%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는 1934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 이에 높아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현지 수입·유통업체는 △주요 품목군을 중심으로 발주량 조정 △한국 공급업체와 가격 재협상 시도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남¹⁵⁾
 - 미국산 원재료(U.S. Content)가 차지하는 가치(value)가 20%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對美 수출전략 수립 시 참고 가능
 - 미국산 원재료란, 해당 제품에 포함된 구성요소 중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거나, 미국 내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친 부분의 가치를 의미하며, 미국산 원재료에 대한 조달비용(원자재 및 구성품 등의 인보이스 가격 또는 구매가)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미국산 원재료가 20% 이상이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¹⁶⁾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해당 제품 전체에 상호관세를 전액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재료를 수출하여 완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입 통관 시점에서 해당 원료에는 관세가 부과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 우회 수출 역시 고관세 대상에 해당하며, 수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역시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 필요
 - 2025년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Truth Social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Goods transshipped to evade a higher Tariff will be subject to that higher Tariff)”고 명시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통관 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보이스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것은 미국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의로 가격을 낮추어 세관 신고를 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지양해야 함
 -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격 조정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문서화된 상업적 조건(commercial terms)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수출가격 조정은 수출자-수입자 간 판매 계약 조건, 거래 방식, 당사자 간 리스크 분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 시 계약서에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

15) 2025년 7월,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 12개사 대상 조사 결과, 트레이드파트너스

16) 미국 공급업체의 인보이스, 구매주문서, 지불내역,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서류 등 전체 제품 가치 중 미국산 원재료 가치의 비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국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모든 자료

- **(공급망 전략 재정비)** 미국 내 인프라를 활용한 현지화 전략과 더불어 미국 외 국가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
 - 미국 현지의 OEM 방식 제조 및 패키징센터 활용 등과 같이 공급망 현지화 전략에 대한 검토 필요
 -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¹⁷⁾, 일부 기업은 추가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급 제품을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비교적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간 한국 농식품의 對글로벌 농식품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외 국가로의 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이 필요
 - 2024년 기준 한국 농식품의 對美 수출 비중은 18.2%로 수출 상위 1위 국가로 나타났으나, 그간 한국 농식품의 편중된 수출구조(미·중·일)를 탈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 외 국가로의 수출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
- **(원산지 검증 대응 체계 마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 및 관리해야 함

표 III-1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구비 서류

구분	설명
생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Flow Chart)	제품이 한국에서 어떻게 제조,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단계별로 나타낸 문서
제조원가 명세서 (Bill of Materials, BOM)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 및 부품의 목록과 각 구성요소의 원산지 정보
원재료 구매계약서 및 인보이스 (Purchase Contracts and Invoices for Materials)	사용된 원재료 및 부품의 구매내역과 공급자의 원산지 증명 관련 자료
제품 설명서 (Product Specification Sheets)	제품의 성질, 용도, 주요 기능 등을 명시한 문서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제품 또는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제조 및 가공공정기록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Records)	제품의 주요 제조 단계가 한국에서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품질관리기록 등
수출입서류 (Shipping and Customs Documents)	한국에서의 수출신고서, 미국 수입신고서(Entry Summary, CBP Form 7501 등)
지불내역서 (Payment Records)	원자재 구매 및 제조 관련 비용 지불 내역(송금기록 등)
사진 및 기타 보조자료 (Photographs and Supplementary Evidence)	생산 공정 또는 완제품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

*출처: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관련 FAQ-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을 위한 핵심 내용 정리와 실무 대응 가이드, KATI 농식품 수출정보(2025.04)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원산지 검증을 위한 단순 서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해당 제품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 서류 간 일관성과 명확한 원산지의 흐름(traceability)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
- 또한 미국 수입 시 관세율은 최종 완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3국에서 수행된 가공이 단순 조립이나 포장 수준을 넘어, 제품의 성질·용도·상업적 인식이 변경될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제3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부과되므로 유의 필요

17) 2025년 7월,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 12개사 대상 조사 결과, 트레이드파트너스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對美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수출 리스크 완화 전략 수립 필요

-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단일 기업 차원의 대응 수준을 벗어난 조치로, 정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 및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對美 수출 리스크 완화에 활용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對美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상호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수출기업 부담 완화 및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원료 구매자금 추가 지원, 농식품 수출바우처 및 수출보험 확대 등을 검토 중임
 - 또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지 유통업체 연계 판촉, 해외 박람회 참가,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입점 등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임
- aT에서는 對美 상호관세를 비롯한 농식품 수출 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애로해소) K-Food 對美 수출 애로해소센터^{4.22~} 운영
 - 온라인 상담 게시판 운영을 통해 대미 상호관세 피해·애로사항 접수 및 분야별 전문가 답변 제공
 - ➡ aT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접속 > 고객참여 > K-Food 대미수출 애로해소센터
 - (정보제공) KATI 농식품 수출정보 사이트 운영
 - 대미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된 뉴스 및 보고서 등 농식품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 ➡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 (컨설팅 제공)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사업 운영
 - 공사 지정 전문 관세사를 통해 HS품목 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등 제공
 -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25.10.31(목)까지 수시 접수

별첨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현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¹⁸⁾

본 설문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국산 농식품 수입·유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응답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우리나라 식품 수출 대응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응답 부탁드립니다.

(설문목적)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對미국 수출 식품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미국)의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Q1. 한국산 농식품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귀사의 수입 또는 유통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	1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불가피
	2	기존 대비 발주량 축소
	3	마진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4	기존 거래처(소매점/식당 등) 수요 감소 예상
	5	대체국가 또는 대체상품 발굴 검토
	6	판매채널(오프라인→온라인 등) 전환 검토
	7	기타(주관식)

Q2.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시, 귀사는 어떤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	1	주요 품목군을 중심으로 발주량 조정
	2	타 국가산 농식품으로 대체 수입 추진
	3	한국 공급업체와 가격 재협상 시도
	4	수입시기 또는 분할선적 등 물류 전략 조정
	5	한국 측(수출자, 협회 등)과 공동 대응
	6	미국 내 한인시장 이외 타 인종 소비층 공략 강화
	7	기타(주관식)

Q3.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응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A	주관식
---	-----

Q4.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로 판매 가격이 인상될 경우, 미국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	1	가격에 민감하여 구매량이 즉시 감소할 것
	2	주요 소비자는 구매를 유지할 것이나, 일부 고객의 이탈이 예상됨
	3	품목별 차별화 발생(예: 필수품은 수요가 유지될 것이나 선택품은 축소)
	4	대체 제품으로의 수요 전환 및 수요 증가 예상
	5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6	기타(주관식)

18) 본 설문조사는 미국의 對한국 상호관세율(15%)이 확정(2025년 7월 31일)되기 이전에 추진되어, 당시 시점의 예상 관세율인 25%를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였음

출처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ITC Trademap(www.trademap.org)
2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Truth Social(https://truthsocial.com)
4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5	미국 Federal Register(www.federalregister.gov)
6	미국 노동통계국(https://www.bls.gov)
7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https://ustr.gov)
8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
9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www.federalregister.gov)
10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3편 식품류(2025.05)
11	KATI 농식품 수출정보,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관련 FAQ-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을 위한 핵심 내용 정리와 실무 대응 가이드(2025.04)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025.02.)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무역 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2025.05)
14	abcNEWS, 'Huge week' of economic data set to test Trump's tariffs(2025.07.30.)
15	BBC NEWS 코리아, 미국은 관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2025.08.01.)
16	BBC, How much cash is the US raising from tariffs?(2025.08.01.)
17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What Will Trump's Tariffs Do for U.S. Consumers, Workers, and Businesses?(2025.04.01.)
18	CNBC, Goldman Sachs is getting worried about the economy(2025.07.22.)
19	FORTUNE, Goldman Sachs' chief economist just downgraded the entire U.S. economy as Trump's latest tariff salvo rattles markets(2025.03.11.)
20	Newsweek, IMF Upgrades Global Growth After Trump Backtracks(2025.07.30.)
21	NHK World, Trump reveals tariff letters for 8 more countries(2025.07.10.)
22	The Budget Lab, Trade State of U.S. Tariffs: July 30, 2025(2025.07.30.)
23	yahoo!finance, Goldman Sachs slashes US economic forecasts as tariff impacts grow 'considerably more adverse'(2025.03.11.)
24	경향신문, 트럼프, 한국 관세 15% 명시·7일부터 시행…69개국 상호관세 행정명령(2025.08.01.)
25	디지털타임스, ‘옷·신발 가격 이게 맞아?’… ‘트럼프 관세’ 역풍,美 소비자들 ‘깜짝’(2025.08.03.)
26	연합뉴스, 美 소비자 ‘트럼프 관세’ 부메랑…세율 18%로 91년만에 최고치(2025.08.03.)
27	한국농정, 미국발 상호관세 25%, 한국 농업 ‘비관세장벽’ 타격(2025.04.13.)